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선아, '스키장'

사랑의열매 

2024
02



사랑의열매 독자 이벤트

귀여운 열매둥이 이모티콘을 드립니다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에 맞춰 사랑의열매에서 귀여운 신입 사원 열매둥이 이모티콘을 선보입니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사원 열매둥이의 좌충우돌 일상을 담은 16종의 이모티콘은 이벤트에 참여한 (사랑의열매) 독자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카카오톡에서 30일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 사원 열매둥이 이벤트 참여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 참여 기간 2월 23일 금요일까지 ●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1.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

- 1 사랑의열매 공식 유튜브(@fruits_of_love) 구독 후, 올라온 영상에 '좋아요' 버튼 1회 이상 누른다.
- 2 '구독'과 '좋아요'가 잘 보이게 캡처한다.
- 3 캡처 화면을 사랑의열매 이메일로 보낸다.

2.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올리기

필수 해시태그 3개(#희망2024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 #기부로나를가치있게)를 모두 포함해 게시물을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3. 찰칵 사진 찍기

- 1 사랑의은도탑, 희망2024나눔캠페인 포스터·광고, 기부 인증샷 등을 사진으로 찍는다.
- 2 찍은 사진을 사랑의열매 이메일로 보낸다.

함께 열매

독자 이벤트

내가 사랑하는 것을 소개해주세요

-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나를 맞이해주는 가족, 하루를 마무리한 후 조용히 맞이하는 밤, 카페에 앉아 마시는 커피 한잔의 여유, 삶의 이유가 되는 반려동물 등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소개해주세요. 선정된 세 분께는 보내주신 사진을 스마트폰 그림톡으로 만들어 선물로 드립니다. 사랑의열매와 관련 있는 사진을 보내면 그림톡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진을 보낼 때에는 용량이 너무 작거나 배경이 복잡한 사진, 잘린 사진은 피해주세요.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1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

2

찍은 사진을 상단의 QR 코드를 통해 응모하거나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로 보낸다.



매달 20일까지 보내면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

- 그림톡 제작에 선정된 사진은 '함께 열매' 코너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사랑의열매



○ 강선아, '스키장'
72×60cm
캔버스에 아크릴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4년 2월 / 통권 20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c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04 표지 이야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그리는
강선아 작가

06 희망2024나눔캠페인
① 나눔 온도를 올린 소중한 마음들
②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스타와 팬클럽

10 나눔 여행
낭만 여행 일번지,
춘천 감성 여행 명소

16 모두의 나눔
모든 이웃을 품어주는
아름드리나무처럼

22 내 인생의 한마디
서울 최초 1호 오픈러스 회원 탄생
김성주 기부자

26 소중한 진심
'교복 판매 장터' 수익금·교내 모금
전액 기부한
수원 칠보고등학교 학생자치회

28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하는
'생명 살림 마을 밥상'

32 문화 레터
주말엔 문화생활

36 착한기업
나눔명문기업 가입하며
사회 공헌 사업 선도하는
대전도시공사

40 나눔공모전
'제11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개최

42 Fun한 나눔

43 전국 열매 이야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56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8 2월 전국 지회 뉴스

68 나눔 만화



“그림은 내 마음의 초대장이에요”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보고 느끼는 것이 다 같진 않다. 강선아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문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고, 미처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PROFILE

현) 디스에이블드 소속 작가

○ 밀알학교 전공과 졸업

2023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 소장
(‘여름 산책’)

2023
제2회 청와대 춘추관 장애 예술인 특별 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2021
SK하이닉스 벽화 디자인 참여

2018
JW아트 어워드 최우수상
(‘뜨개질하는 강선아’)

2016
JW아트 어워드 우수상(‘응원’)

2015
<매일매일 고마워> 책 삽화 작업

201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 소장
(‘불꽃장’, ‘호빵맨 친구들 2’)

현실과 상상 그 경계에서

작업실에 들어서자마자 강선아 작가가 무언가를 손에 꼭 쥐어주었다. 손수 뜯은 예쁜 아크릴 수세미와 작은 메모지였다. 종이에는 “○○아파트 2동 105호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쓰여 있었다. 강선아 작가는 학창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즐거웠던 기억을 메모지에 써서 주곤 했다고 한다. 메모를 펼치는 순간 강선아 작가와 공통의 추억을 공유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선아 작가의 작품 세계와 꼭 닮아 있었다.

“언뜻 보면 잘 알려진 캐릭터들뿐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선아의 즐거웠던 순간이나 강렬한 기억, 추억하고 싶은 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번 <사랑의예매> 표지 작품 ‘스키장’도 자세히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강선아 작가의 어머니 박정숙 씨는 작품 속에서 딸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순간을 발견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여러 가지 소재로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강선아 작가, 기존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표정과 상황으로 살짝 비튼 디테일이 뛰어나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가로 우뚝

발달장애를 가진 강선아 작가는 두 살 무렵부터 치료 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처음엔 점만 찍는 수준이었지만, 여섯 살 무렵 인기 유아 프로그램 <텔레토비> 캐릭터를 선과 면으로 그려냈다. 이후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학창 시절 내내 봄가를 사생 대회를 휩쓸었다. 박정숙 씨는 딸이 대회만 나가면 꼭 상을 탔기 때문에 그림에 남다른 소질이 있음을 짐작했다고 한다.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그림 2점이 소장되고, 2018년 JW 아트 어워드(JW ART AWARD)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뻐요. 하지만 잡지 표지에 실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연락받고 무척 영광스러웠어요.”

강선아 작가는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전업 작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상을 타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영구 소장되는 최고의 명예도 얻었다. 하지만 이런 명성과 달리 강선아 작가는 그저 그릴 뿐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세계를 끊임없이 그린다. 잠깐 여기도 한번 보라고 부르는 것 같다. 강선아 작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짝 고개를 돌려보자. 🍀

사랑의온도탑 100℃를
만든 나눔 온기

나눔 온도를 올린 소중한 마음들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캠페인 기간 내 100℃를 달성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마음이 담긴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김후연, 권정의, 권영하, 권일한, 권락희 기부자

8년째 사랑의 저금통 기부하는 권락희·김후연 가정

● 지난해 12월 12일 권락희·김후연 부부는 자녀 권일한, 권영하, 권정의와 함께 부산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벌써 8년째 매년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으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난 1년 동안 모은 사랑의 저금통을 기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모아 마련했다. 권락희 기부자는 “아이들이 심부름이나 정리 정돈을 하고 받은 용돈을 모아 저금통을 채워왔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기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신의 용돈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참빈 어린이

● 2023년의 마지막을 앞둔 12월 28일 전북 임실군 청웅면사무소에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청웅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참빈 어린이가 제법 목직한 돼지 저금통을 기부한 것. 받은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 돼지 저금통을 가득 채웠다는 이참빈 어린이는 “추운 겨울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어린이의 소중한 기부금은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생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 임실군 청웅면사무소에 돼지 저금통을 기부한 이참빈 어린이



1

고사리손으로 함께 모은 기부금 전달한 전북경찰청 어린이집

● 2023년 연말 전북경찰청 어린이집 원아 60명과 교사들이 KBS전주방송총국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달했다. 이들이 기부한 150만 4,000원의 성금은 12월 한 달간 모았다. 원아 60명은 용돈은 물론 고사리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청, 봉어빵, 어묵 등을 이웃과 나누는 행사를 통해 기부금을 마련했다. 기탁받은 소중한 성금은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취약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1 기부금 마련을 위해 연 나눔 행사 2 이번에 기부금을 전달한 전북경찰청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들 3 이웃과 나누는 행사를 위해 직접 수제 청을 만든 원아들



2



3



4



5

5년간 모은 동전 5,864개 전달한 김이봉 기부자

● 지난해 12월 19일 경북 상주시 모서면에 거주하는 김이봉 기부자가 나무 토막 형태의 저금통을 들고 모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저금통을 열자 100원, 500원 주화 등 동전 5,864개가 쏟아졌다. 기부자는 2019년부터 5년째 매일 동전을 모은 결과 총 70만 780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장, 노인회장 등을 맡아 꾸준히 지역 사랑에 앞장서온 그는 이웃 돕기를 결심하며 집 안에 있는 동전, 물건을 사고 받은 거스름돈 등을 저금통에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김이봉 기부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적은 돈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4 이웃 돕기를 위해 동전을 모아 기부한 김이봉 기부자(가운데)
5 5년간 나무 저금통에 모은 동전 5,864개

받은 사랑을 따뜻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스타와 팬클럽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타와 팬들도 사랑의열매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좋아하는 만큼 베풀고,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며 새로운 나눔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 1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은 산다라박
- 2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등 많은 이의 축하를 받은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
- 3 홍보대사 위촉식을 위해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은 산다라박



연말 광고 모델에 이어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산다라박

● 사랑의열매 연말 광고에서 '나플나플 댄스'를 선보이며 긍정 에너지를 전파한 투애니원(2NE1) 출신 가수 산다라박이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산다라박은 지난해 12월 27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산다라박은 "사랑의열매 연말 광고 모델에 이어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설레고 기쁘다"며 "연말 광고 슬로건처럼 나와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기부에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다라박은 그룹 투애니원으로 데뷔해 K-팝 최정상 아이돌로 활약했다. <비디오스타> 등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에는 첫 미니 앨범 <SANDARA PARK>을 발매해 솔로 가수로서 매력을 발산했다. 또한 2020년 난치병 환아를 위해 마스크 3만 장을 기부했으며, 2021년에는 유기 동물을 위한 사료 1톤을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 새해 첫 아너 회원이 된 트와이스 나연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울산 아너 클럽 박정희 회장, 트와이스 나연, 울산 사랑의열매 전영도 회장이 함께한 아너 가입식

● 다섯 번째 월드 투어에 나서며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트와이스 나연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월 4일 서울 강동구 JYP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트와이스 나연, 울산 사랑의열매 전영도 회장, 울산 아너 클럽 박정희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아너 가입식을 진행했다. 나연은 이날 사랑의열매 2024년 1호이자 전국 3333호 아너 회원(울산 126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2022년에는 울산 동강병원 저소득 환자를 위한 치료비를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 3,000만 원 역시 울산 동강병원을 통해 의료 취약 계층의 수술비로 쓰일 예정이다.

팬덤 기부 문화 활성화 이끄는 착한팬클럽

● 사랑의열매는 3,000만 원 이상 기부한 팬클럽 기부자를 위한 '착한팬클럽'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가수 김희재 다음 공식 팬카페 '김희재와희랑별'과 프로 골퍼 박성현 네이버 공식 팬카페 '남달라'가 착한팬클럽 공동 1호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김희재와희랑별이 3,000만 원, 남달라가 5,100만 원을 기부하며 각각 착한팬클럽 그린, 실버

로 가입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에는 가수 영탁의 팬클럽 '탁스튜디오'가 성금 5,000여만 원을 기부하며 착한팬클럽에 합류했다. 특히 탁스튜디오는 2021년 7월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4년째 꾸준히 기부하며 누적 성금 2억 5,800여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했다. ♣



1 착한팬클럽 공동 1호로 가입한 가수 김희재 공식 팬클럽 김희재와희랑별 2 5,100만 원을 기부하며 착한팬클럽 공동 1호로 이름을 올린 프로 골퍼 박성현 네이버 공식 팬카페 남달라 회원들 3 4년째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착한팬클럽에 이름을 올린 가수 영탁의 팬클럽 탁스튜디오



낭만 여행 일번지,

춘천 감성 여행 명소

춘천이란 이름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거기에는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 한 자락이 이제나저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언덕이 있고, 들판이 있다. 사계절 모든 시간을 낭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춘천으로 가자.

글 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

구봉산 전망대 카페 거리

호수만큼이나 산이 많은 춘천, 해발 441.3m의 구봉산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춘천의 전경과 야경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굳이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카페 거리에 들어선 카페나 주변 휴게소 등에 둘러 편하게 전망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이곳을 찾는 이들에겐 단연 카페 '산토리니'를 추천한다. 아니, 이곳은 언제라도 꼭 가봐야 할 곳이다. 유명한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시키는 하얀색 건물이 무척 인상적이다. 너른 잔디밭과 함께 춘천의 상징인 소양2교와 봉의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어떻게 찍어도 인생 샷을 선사한다. 특히 노을이 질 때면 계절을 불문하고 감성에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적인 곳이다.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54
- ☎ 033-255-4366



소양강

물의 도시 춘천, 그러나 한겨울 추운 날씨에 강바람이 웬 말이나 의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절마다 그 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이다. 그 중심에는 소양강이 있다. '소양강 처녀'의 노랫말로 익숙한 이 강은 강원특별자치도 중부 지역을 남서로 흘러 춘천 북쪽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춘천 여행의 출발점이다.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소양호 유람선, 소양강 스카이워크, 소양강 처녀상, 청평사 등 다양한 관광지가 이어진다. 소양호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둘레길을 따라

소양강댐을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그만이다. 운이 좋다면 소양강댐 물을 방류하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지만 몇 년에 한 번, 워낙 그 횡수가 적어 방류 소식에 맞춰 춘천을 찾는 방문객이 있을 정도다. 소양강 선착장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고려 시대에 창건한 사찰인 청평사로 향할 수 있다. 산과 구름이 호수에 비쳐 어디가 하늘이고 호수인지 모를 만큼 맑은 소양호의 절경을 곁에 두고 유유자적 배를 타고 물 위를 유람하는 기분에 그간 쌓인 온갖 스트레스가 날아갈 정도다. 특히

2월의 소양강이라면 상고대가 활짝 핀 절경을 놓칠 수 없다. 상고대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나무와 풀·돌 등에 내린 서리를 말하는데, 마치 하얀 눈꽃이 살포시 핀 것 같다. 소양강에서도 춘천 시내 소양3교와 소양5교가 상고대 명소에 손꼽힌다. 영하 10℃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습도가 80% 이상 되어야 피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날이면 순백으로 아름답게 물든 겨울 왕국 풍경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는 이가 많다. 겨울에 카약과 카누를 타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강촌 레일파크

한국 철도 최초로 사람 이름이 역명이 된 곳, 바로 김유정역이다. 강촌 레일파크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경춘선 전철 김유정역 바로 옆에서 출발한다.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쓸모를 다한 옛 경춘선 철로에 이제는 기차 대신 낭만적인 레일바이크가 달린다. 탑승장에는 지역 특색을 살려 대형 책 조형물과 오색 우산 조형물을 설치한 포토 존을 비롯해 카페, 집라인 등 소소한 즐길 거리가 많다. 김유정역 탑승장을 출발해 옛 강촌역까지 전체 8.5km 코스로 6km 구간까지는 레일바이크로, 나머지 2.5km 구간은 낭만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 레일바이크 구간은 주로 내리막길로 이뤄져 힘들지 않고, 산과 들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목가적 풍경과 갖가지 테마로 꾸민 터널이 이어진다. 이국적 분위기의 낭만 열차는 북한강을 따라 달리며 탁 트인 전망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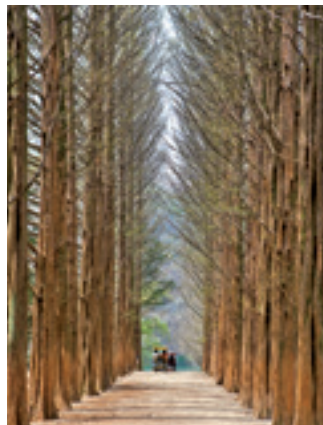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83 ☎ 033-245-1000



의암호

의암호는 1967년 수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의암댐을 건설하면서 생성된 인공 호수다. 경관이 수려한 삼악산 자락과 그림처럼 떠 있는 상중도, 하중도, 봉어섬 등이 어우러져 자연호 못지않은 풍광을 자랑하는 데다 호반 순환도로와 관광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타원형 호수 둘레를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은 약 30km에 이르는 코스 대부분이 완만해 초보자도 쉽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물레길이 유명하다. 나무 카누를 타고 출발해 하중도 옆에 붙은 아담한 무인도를 돌아보는 코스로, 이국적인 자작나무 숲과 물오리 서식지 등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하안 줄기가 독특한 자작나무와 초목이 울창한 무인도와 하중도 사이 수로는 의암호물레길의 하이라이드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옛 경춘로 114 ☎ 033-260-5221



남이섬

남이섬은 이제 세계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북한강 위에 반달 모양으로 떠 있는 남이섬은 1944년 청평댐을 건설하며 생겨난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1970~1980년대에 '강변가요제'가 열렸고, 드라마 <겨울연가>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면서 낭만 그 자체의 장소가 되었다. 배에서 내려 섬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양편으로 잣나무가 늘어선 길을 걷다 보면 누구라도 <겨울연가>의 남녀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섬 안에는 갤러리, 박물관, 공방 등등 다양한 볼거리를 비롯해 1인용부터 6인용까지 섬을 돌아볼 수 있는 자전거와 유니세프 나눔열차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해 지루할 틈이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 1 ☎ 0507-1311-8114



시골막국수

현지인이 즐겨 찾는 맛집으로 으뜸가는 곳이다. 춘천 막국수의 자존심이라 할 만하다. 면부터 양념, 김치까지 가족 경영을 통해 3대째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고 있다. 동그랗게 말아 올린 메밀면 사리 위에 양념장과 오이 등의 고명을 얹고 함께 나온 동치미 국물을 입맛에 맞게 부어 먹는다. 이 밖에도 편육과 빈대떡, 도토리묵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갈스럽다. 시골 음식의 건강한 맛과 양념에서 나오는 감칠맛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다. 한때 내로라하는 하는 재벌 회장님들의 단골집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길 100 ☎ 033-242-6833 🌐 chuncheonsigol.modoo.at



통나무집 닭갈비

맛이면 맛, 기부면 기부, 명실상부 춘천의 자랑이다. 1978년 처음 문을 연 통나무집 닭갈비는 40년 전통의 맛집이다. 춘천을 넘어 전국구 닭갈비 외 식업체로 우뚝 선 통나무집은 당일 도계한 국내산 생닭의 다릿살만 이용해 육질이 쫄깃하고 고소하다. 신선한 양배추와 달콤한 고구마에 싱싱한 채소를 듬뿍 넣어 통나무집만의 비법 양념장으로 볶아낸 닭갈비는 춘천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되기에 충분하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춘천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생밭로 763
☎ 033-241-5999
🌐 <https://www.chdakgalbi.com>



1.5닭갈비

춘천을 잘 아는 지인에게 닭갈빗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1.5닭갈비를 말할지 모른다. 그만큼 춘천에서 제일가는 곳이다. 1989년 개업해 30년 넘게 춘천 후평동 인공 폭포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맛을 유지해오고 있다. 오직 국내산 닭고기 넓적다릿살만 이용해 푸짐하게 볶아낸 닭갈비는 춘천 닭갈비의 명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볶음밥까지 아무지게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곳이다. 온라인 주문도 가능해 더욱 인기다.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만로 77
☎ 033-253-8635
🌐 <https://일점오닭갈비.com>



모든 이웃을 품어주는 아름드리나무처럼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사회적 돌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희망2024나눔캠페인에서도 사회적 돌봄을 4대 지원 분야로 선정했다.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돌봄 공백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많은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글이선희 사진각나눔 기관 일러스트명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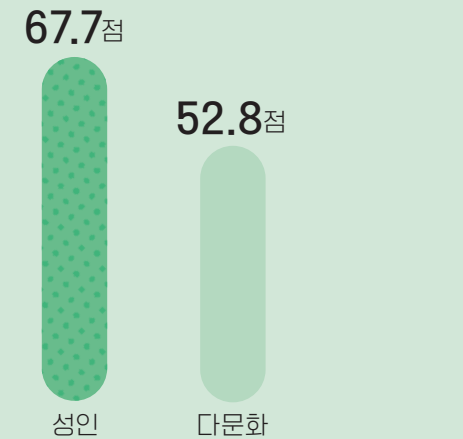
다문화 가정의 한국 금융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금융 교육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생생경제 금융교실’



금융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주 여성들

● 다문화 가정의 금융 이해력 수준은 일반 성인과 비교해 15점이나 낮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 금융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 사기 같은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금융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금융교실에 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다문화 가정의 성인과 청소년에게 기초 금융 지식을 제공,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 키트로 비대면 금융 교육 콘텐츠를 지원해 다문화 가정 초등학교생이 각 기관이나 가정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도록 했다.

● 취약계층의 금융 이해력 수준 비교



“다문화 가정의 금융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 금융 교육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생생경제 금융교실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김인지 연구원

출처: 「취약 계층은 어디에 얼마나 취약한가?」, 한국금융교육학회

2023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 사업 ‘위드안심마을’



1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탠 포스코A&C 임직원들 2 위드안심마을 완공식 모습 3 페인트칠 봉사에 참여한 포스코A&C 임직원들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포스코그룹 CI(Collective Impact)사업으로 포스코A&C, 포스코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범죄 불안 요소를 개선하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인천대학교가 2009년 송도로 이전하며 유동 인구가 급감해 저조도화 및 방치된 건물들로, 주변 거주민 등의 지속적인 우려와 민원이 있던 곳이었다. 포스코A&C 임직원 대상 CPTED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폐쇄된 대학 건물 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디자인 펜스 설치, 어두운 공터에 태양광 조명 기구 및 슬라 표지병 설치, 페인팅 벽화가 아닌 태양광 활용 벽화를 시공해 주변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조성되었다.



“조도를 높여 지역 미관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주변 거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도왔고, 강아지 산책 등 활동도를 높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포스코A&C 임직원이 직접 봉사 활동에 참여해 해당 지역의 공사를 도운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선재 팀장

원도심 주민이 마을과 함께 성장할 아이들을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 ‘애(愛:사랑애) 지(地:땅지) 중(重:소중할중,아이동) 지(志:뜻지)’



“기존 마을 공유 공간은 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사용 허락을 하지 않아 유휴 공간을 찾으러 다니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랑의열매 덕분에 만든 공유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 (사)미래를여는아이들 서미정 국장



● 천안의 대표 원도심인 동남구와 신도심인 서북구를 비교해보면 전체 어린이 놀이 시설의 차이는 200개가 넘는 등 문화·복지시설의 불균형이 심하다. 이는 곧 원도심 지역 사람들이 신도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지역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사)미래를여는아이들은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동남구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 공유 공간을 조성했다. 2022년 12월 ‘원성동공유공간100’을 개소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하고, 방과후마을학교를 운영해 초·중·고생이 돌봄 사각지대 아동부터 중학생 이상 청소년의 다양한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래방 기기, 전면 거울, 무대 등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간을 조성한 결과, 지역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1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카리나를 배우는 주민들 모습 2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영케어러의 일상을 포기에서 도전으로 바꿔주는 사회적 돌봄 사업 ‘부모의 부모가 된다’

●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는 질병, 장애, 정신 건강,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을 일컫는다. 지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을 계기로 영케어러 문제가 사회적 공론장에 나왔으나 정확한 국가 통계조차 없다. 이에 총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영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돌봄비 긴급 지원, 영케어러가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심리·건강·교육·취업·휴식·여가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영케어러가 자유롭게 지원을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는 SNS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케어러 인식 개선 교육과 공감대 형성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약을 맺어 영케어러를 지원 및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영케어러 사업이라 대상자만 지원받는 줄 알았는데, 보호자까지 지원받아 신기했고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엄마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안성맞춤으로 구성되어 좋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엄마의 병이 저에게는 버거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계기로 엄마에겐 좋은 변화가 생겼고, 덕분에 저와 엄마의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업 참여자 A

MINI INTERVIEW

총주종합사회복지관
박지연 사회복지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영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 선제 발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영케어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주변에 영케어러가 있지만 발굴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는 돌봄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는 등 악순환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를 선제 발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케어러들은 주로 어떤 자기 돌봄 활동을 했나요? 대부분 학원과 온라인 강의 등 교육비에 사용했습니다. 자기 돌봄 지원을 통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과 학업 성적 향상 등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학업을 놓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향상되어 매우 긍정적 변화가 있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가족돌봄청년 주당 평균 돌봄시간 **21.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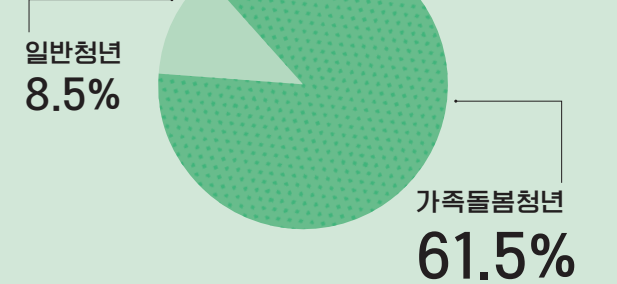
가족돌봄청년 평균 돌봄기간 **46.1**개월

기존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를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영케어러 가정 상담 후 사업 지원뿐 아니라 외부 자원 연계(노트북 등)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케어러 가정에 더욱 구체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 기관 내 사례관리 팀에 연계해 선정될 경우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케어러 가정마다 유형이 다양하고, 학업과 취업 및 심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선 많은 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영케어러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는데, 사랑의열매 지원을 통해 참여자에게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우울감 유병률



“동생 기리며 무료 호스피스 건립합니다”

한 미혼모 아이의 심장병 수술비 후원자를
급하게 찾는 병원의 전화, 수화기를 드는
순간 그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오직 나눔으로 많은 이를 보듬어온 김성주
기부자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검소한 기부자님의 큰 나눔

김성주 기부자를 만나러 가며 적잖이 긴장했다.
기부의 대가로 2019년 ‘국민포장’까지 받은 유명한
분이기 때문이다. 만남 역시 10억 원 이상 기부하

는 성장형 아너 소사이어티 ‘오픈러스(Opulus)’ 서울 1호 회원 가입을 기념하며 이루어
진 터였다. 게다가 인터뷰가 있기 며칠 전 중앙 일간지에 그의 나눔 일대기가 대대적으
로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긴장감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보기 좋게 깨
졌다. 사무실 찾기가 까다로울 거라며 인근 지하철역까지 직접 마중을 나올 정도로 격
의 없고 소탈한 모습이었다. 직원들은 “3만 원 넘는 웃은 입지 않으실 정도로 자신에겐
검소하신 분”이라며, 존경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외국 회사를 다녔고 수시로 외국을 오가며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남들처럼
돈 불릴 궁리만 하며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기부를 하니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하면서 전처럼 잘 먹고 잘 쓰면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자연
스럽게 걸치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어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며 승승장구하던 김성주 기부자는 일찌감치 주식 투자 등으로 재
산을 불렸다. 퇴직 후에는 무역 회사를 설립해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로 자리 잡을 수 있
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은 평생 이웃을 위해 살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시작은 우연
히 받은 전화 한 통이었다.

서울 최초 1호 오픈러스 회원 탄생...
김성주 기부자



우연히 받은 전화 한 통

김성주 기부자는 퇴직 후 친구의 권유로 한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으니 봉사도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막연한 선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사회복지 담당'이었다.

“2007년도였어요. 마침 봉사 단체 사무실에 있을 때 서울대어린이병원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미혼모 아이가 급하게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를 좀 후원해줄 수 있느냐고요. 회원들끼리 십시일반 모으면 되겠다 싶었지만, 속도도 느리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김성주 기부자는 아이의 생명이 직결된 상황이라 고민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다는 강한 직감에 결국 8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성주 기부자의 생애 첫 번째 기부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몇 년이 지난 후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수술 성공 사례로 건강하게 자란 아이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중학생으로 자란 모습까지 병원 소식란에서 봤는데, 그 아이에게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 여전히 돈 불릴 궁리나 하면서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있었겠죠.”

여동생의 안타까운 죽음

2007년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시작된 김성주 기부자의 나눔은 현재 40여 곳의 사회복지 기관에 매월 약 4,000만 원씩 기부하는 규모로 커졌다. 지난 16년간 기부한 돈만 40억 원이 넘는다.

“오래전부터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고 있었어요. 지인 사무실에 가면 멋진 명패를 종종 봤거든요. 하지만 어쩐지 내가 기부자라고 광고하는 것 같아 쑥스럽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미루어두었죠. 그러다 여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의열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지난해 12월, 김성주 기부자는 서울 최초 아너 소사이어티 오피러스 회원으로 가입하며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직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가슴 아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2022년 여름, 독일어 강의와 번역 일을 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의 막내 여동생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손쓸 틈도 없이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 집에 여동생은 쓰러져 있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느냐 김성주 기부자를 나무랄 정도였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부해왔지만 정작 여동생은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금도 괴롭기만 하다.

“황망하게 동생을 보내고 재산을 정리하는 데 예금 21억 원이 있는 거예요. 웃도 안 사고, 생전 화장 한번 안 하고... 오래된 작은 국산차 하나 끌면서, 너무 검소해서 그저 저 하나 건사하며 사는 줄 알았지 그렇게 거액을 남겼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여동생은 서울 강북 조그만 아파트에서 에어컨도 없이 살면서 돈을 아끼느라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다. 김성주 기부자는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음만 있다면 나눔의 기회는 언제고 찾아옵니다. 다만,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인생 최고의 행복이 나를 찾아온 거니까요.”

- 김성주 기부자

말기암 환자 쉼터 건립

김성주 기부자는 첫 기부의 순간처럼 여동생이 남긴 유산 역시 좋은 곳에 써야 함을 직감했다. 그는 남은 가족들과 상의해 1억 원은 여동생의 모교인 이화여대 독문과에 장학금으로 쾌척하고, 남은 20억 원은 말기암 환자를 위한 무료 호스피스 부지 비용으로 순교복자수녀회 마뽀암재단에 기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동생 세례명 가브리엘라를 딴 무료 호스피스 '가브리엘라 천사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김성주 기부자는 20억 원을 기부하며 사랑의열매 오피러스에 가입한 것이다.

“여동생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내놔도 아깝지가 않아요. 지금이라도 살아 있으면 오빠가 신경 많이 못 써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싶어요. 말기암 무료 호스피스를 지어놓으면 동생도 하늘에서 편히 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스스로 아픈 마음을 위로해 봅니다.”

가브리엘라 천사의 집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김성주 기부자의 기부 중 가장 큰 규모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며 시작한 나눔이 이제 누군가의 다한 생명을 마지막까지 위로하기에 이른 것이다. 부디 그가 나눔 마음들이 돌고 돌아 다시 그에게 복되게 전해지기를 응원해본다. ♡

자신의 나눔 철학을 이야기하는 김성주 기부자. 뒤로 그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 40여 곳의 사회복지 기관 자료들이 보인다.



[경기 사랑의열매 희망2024
학교모금 나눔캠페인]
‘교복판매장터’ 수익금·교내모금 전액 기부한
수원 칠보고등학교 학생자치회

“기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졸업생 등이 기부한 교복을 재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교복 판매 장터’
수익금을 전액 기부한 수원 칠보고등학교
학생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교복을
통해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글 강은진 사진 칠보고등학교



열매동이와 함께한 수원 칠보고등학교 성금 전달식



교복 판매 장터 풍경. 성금 모금을 위해
평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

“나눔은 열의 이동 방식
중 하나인 복사라고
생각해요. 태양복사를
통해 멀리 떨어진
지구까지 따뜻한 열이
전달되듯, 기부를 통해
멀리 있는 이웃에게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 제11회 수원 칠보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일동

전교생이 함께한 나눔의 기쁨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멋진 나눔의 손길이 함께했다. 주인공은 수원 칠보고등학교 학생자치회다. 지난해 12월 4일, 칠보고등학교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기부금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교복 판매 장터’ 수익금과 별도 교내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학생회 측은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1만여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학생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익금을 기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하지만 소액은 사정상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기부처를 찾는 데 애를 먹었죠. 그때 어떻게 아셨는지 경기 사랑의열매에서 저희 학교 SNS 계정으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칠보고 제11대 학생자치회 학생복지부장 김유나 학생은 사랑의열매의 연락을 받고 추가 교내 모금 활동을 진행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부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학생회는 사랑의열매로부터 제공받은 모금함 30개를 각 반에 배포하며 재학생들에게 기부 취지를 알리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다. 칠보고 학생회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 경험한 작은 기부나 봉사의 기억이 떠올라 다시금 누군가를 돕는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하기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나눔 활동과 멀어진 것 같아요. 이번 기부로 나눔의 좋은 추억들이 떠올랐고요. 전달식에서 열매동이와 사진을 찍을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칠보고 학생들의 마음까지 전해지길 바랐어요.”

학생자치회 부회장 정준호 학생은 기부금 모금을 위해 교복도 처음 책정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했다고 전했다.

기부 통해 자존감도 쑥!

칠보고 학생자치회의 기부 소식은 여러 언론에 소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또 주위의 응원과 칭찬도 자자했다. 기부 소식을 업데이트한 SNS 게시물은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하트를 받았으며, 교장선생님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인터뷰 일정을 정리하며 매니저를 자처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자치회 관련 기사에 큰 자부심을 느꼈으며 학생회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칠보고 학생회는 보다 다양한 기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번 기부를 진행하면서 참여 의사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못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기부 광고를 보아도 단계가 복잡해 하다 말기도 하고요. 학업으로 바쁘니까 이번에 사랑의열매가 그랬듯이 먼저 제안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어 칠보고 학생자치회장 정혜리 학생은 “나눔을 통해 나 자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존감이 높아졌다”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나눔으로 세상에 온기를 더한 칠보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하는
'생명살림 마을 밥상'

“밥 한 그릇 나눠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릅니다”



참여자에게 안부를 물으며 함께
배식하는 모습.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며 건네는 일상의
인사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밥에는 따뜻한 치유의 힘이 담겨 있다. 소중한 사람에게 “밥은 먹었냐”며
안부를 묻고, 상처 입은 이에게 말없이 밥을 건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턱없는밥집’에서 제공하는 한 끼의 밥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글 강보라 사진 이승재

출입구에는 따뜻한 한 끼에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쪽지로 가득하다.



문턱없는밥집은
밥을 매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문턱없는밥집에서 맛보는 가장 따뜻한 한 끼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문을 여는 ‘문턱없는밥집’에서는 애
정 어린 잔소리가 양념처럼 더해진다. “영웅본색 님, 가리지
말고 나물 좀 더 드세요”, “자두 님,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
요”라는 말에는 푸근한 정이 담겨 있다. 여느 식당과 다른 이
곳은 손님의 이름과 조미료, 잔반이 없는 3無 수칙을 지킨
다. 사회적 직책이나 경력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정
한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고, 자극적인 조미료는 아웃, 발
우 공양에 버금가는 잔반 제로를 지향한다. 또한 사업 참여
자 외에 돈 없는 사람도 형편껏 비용을 내고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야말로 문턱없는밥집
이다. 이곳에는 오로지 진심 어린 환대와 온기가 있을 뿐이
다. 이런 철학은 먹거리 나눔을 통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고시원처럼
조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끼니를 챙겨 먹기 쉽지 않은 사람
들이 문턱없는밥집으로 초대되는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점심은 사업 참여자와 함께 일반인도 방문 가능한 식당으로
운영한다. 수요일은 돌봄이 필요한 회복기 환자에게 죽을, 목
요일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직접 만든 반찬을 배달하
고 있다.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기본적
인 건강 체크와 만성질환 관리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진다.
문턱없는밥집의 고영란 대표(닉네임: 산책)는 “친환경 먹거
리는 늘어났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환
경에 처한 사람이 많다”며 “이들에게 친환경·유기농 먹거
리를 제공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기후위기 시대에 일



일주일에 두 번은 인스턴트식품의 자극적 맛에서 벗어나
집밥처럼 편안한 음식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문턱없는밥집 모습. 매주 월·화요일에 문을 여는데, 이때는 일반인도 밥값(백반 1만 1,000원)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제철 유기농
식재료로
준비되는
문턱없는밥집의
음식들



상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먹고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 농업을 실천하는 소농들까지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밥을 매개로 서로 연대하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는 뜻이 담긴 밥집이다.

일상 회복을 돕는 우리 마을 건강 강좌

문턱없는밥집의 차별점은 건강 강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건강강좌를 통해 약손 마사지, 긴장과 불면증 완화하기, 웰다잉 등 다양한 주제의 우리 마을 건강 강좌가 열린다. 자신의 몸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구강 관리법, 약 복용과 건강기능식품 섭취법, 심뇌혈관 질환 이해와 예방 등 전문 강좌에는 지역 자원인 동네 의원과 치과, 약국 등에서 교육자로 참여한다. 건강강좌는 협력 기관인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영실 사회복지사(닉네임: 띠라뽕)가 담당하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 지원과 함께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해 우리 마을 건

강 강좌에 온 정성을 기울인다.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단절되면서 건강과 사회적 관계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을 회복시키는 관문에 문턱없는밥집이 자리하는 것이죠. 밥을 먹으며 친해진 뒤 안부를 물으며 당뇨병 후유증으로 발을 절단해야 할 정도의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참여자를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다학제 건강관리를 통해서 병원으로 연계해 치료를 진행하였고, 발가락 일부만 절단하는 수준으로 회복해 밥집에 식사하러 오고 계십니다." - 조영실 사회복지사
조영실 사회복지사는 모임의 시작이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건강이라는 건 병원에서만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것을 접하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활동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을 공동체 내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함께 놀다 보면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진정한 재활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 조영실 사회복지사

밥심(心)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관계망

"이렇게 맛있는 죽, 처음 먹어봅니다. 우리 부부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목요일에 배달하는 반찬과 죽을 받은 참여자가 남긴 감사의 쪽지다. 몸이 아파서 식당 방문이 어렵거나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참여자들이 음식을 배달하며 서로를 챙기고 돕는다. 그렇게 함께 밥을 먹으며 식구(食口)라는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턱없는밥집은 마음이 허기진 이들에게 또 하나의 집이며 가족이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참여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만, 배송 참여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서 단순 참여자에서 이제는 운영의 주체가 되어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웃이 생기고 친구가 생겨 서로 돌볼 수 있게 된 것이죠." - 고영란 대표

식구는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단순히 밥만 먹는 관계가 아니라 매일 밥을 함께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 곧 가족을 뜻한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가족의 범위로 끌어들이 만큼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 먹으며 대화로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을 확인하곤 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을 때도 음식으로 위로를 건네며 슬픔을 견디곤 했다. 그렇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문턱 없는 밥집은 혈연을 넘어 음식을 매개로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고민하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회관계망이 더욱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 고영란 대표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장식된 문턱없는밥집의 벽면. 이곳의 밥상 철학에 공감하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MINI INTERVIEW

"밥을 매개로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야죠"



문턱없는밥집 고영란 대표

문턱없는밥집이 기존 배식 사업과 다른 점은?
한 끼의 식사를 환경, 복지, 지역 등의 키워드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취약 계층에 건강한 음식 제공을 기본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를 돕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음식 조리에도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
엄마나 할머니가 해주는 것처럼 평범한 집밥을 지향한다. 식재료는 모두 유기농 국산으로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에서 구입하고 있다.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굵거나 찌는 등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건강한 조리법으로 요리한다. 김치도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담근 것이다. 문턱없는밥집에서는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자들의 변화를 체감한 순간은 언제인가?
밥을 먹을 때 대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끼 때우기 위해 먹는 밥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살피는 시간으로 바뀌어갔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도 늘었다. 식사 이후 커피 타임으로 이어졌고, 식재료를 함께 다듬으며 친분도 다졌다. 그렇게 밥을 매개로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네트워크가 저절로 형성된 것이다.

문턱없는밥집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사업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차원의 운영비 후원이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식당에 필요한 인력이 많은데, 사랑의열매의 자원에도 불구하고 주방과 전담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문턱없는밥집의 경우 참여자들이 봉사 개념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이럴 때 소정의 비용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면 취약 계층 자립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변화의 물꼬는 이렇듯 실질적이고 작은 곳에서 트이기 시작하는 법이니 말이다.

이번 주엔 뭐 하지

주말엔 문화생활

황금 같은 주말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면,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뮤지컬부터 전시, 책까지 취향껏 고를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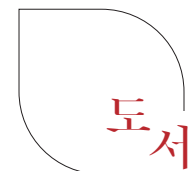
글 이선희 사진 각 출판사 및 제작사, 한국경제신문, 2448아트스페이스,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오디컴퍼니(주), EMK뮤지컬컴퍼니



영화

《웁카》는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시간상 앞선 사건을 다룬 속편)이다. 세계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되기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윌리 웁카의 모험과 여정을 그렸다. 할리우드에서 연기력과 스타성을 인정받은 배우 티모테 샬라메가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용감한 웁카를 연기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력을 뽐낸다. 여기에 초콜릿 도시의 화려한 볼거리, 조연들의 유쾌한 연기까지 더해져 관객들이 2시간 내내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2024년 1월 31일 개봉



푸바오, 언제나 사랑해

국내 탄생 1호 아기 판다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푸바오와의 이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 책은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1년의 추억을 담은 포토 북으로, 영원한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의 애뜻한 편지까지 실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러भाव. 아이바오와의 첫 만남, 아이바오의 모성애 등 바오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생생한 사진으로 담아내 행복한 모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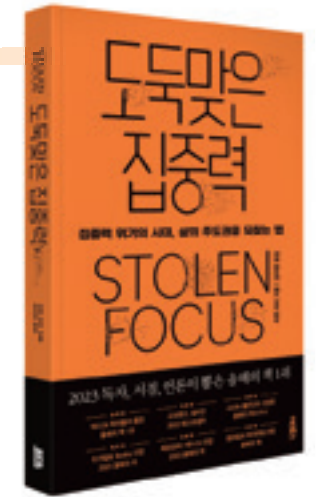
에버랜드 동물원(강철원 글, 류정훈 사진), 시공주니어



도둑맞은 집중력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는 집중력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도 현대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는 원인을 크게 '너무 많은 것'과 '너무 적은 것'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해 설명한다.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 만성적 스트레스와 각성 상태, 불충분한 수면과 짧아진 소설 읽기 경험, 몰입의 체험과 영양이 있는 음식 섭취의 부족이다. 이 밖에도 잘못된 ADHD 진단과 몰입의 손상, 탄생각의 실패 등 책에는 집중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빼앗기는 과정은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충격적으로 집중력을 빼앗는 원인들까지 집중력을 도난당하는 현실을 전방위적으로 폭로한다. 기존 책들의 통념을 단숨에 전복시킴으로써 문제의 규모만큼 사회적 차원으로 해결책을 확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요한 하리 저, 김하현 옮김, 어크로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2023년 소설가6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2위, 예스24와 알라딘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등 지난해 큰 주목을 받은 최은영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이다. 책에 담긴 일곱 편의 중, 단편은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야기의 부피를 키우며 독자를 뜨거운 열기 한 가운데로 이끄는 몰입력과 호소력이 돋보인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리는 데 특출한 감각을 발휘하는 최은영 작가는 이번에도 "나라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나였다면 그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니?"("답신")라고 독자에게 묻는다. 표제작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에선 관계의 복잡한 어긋남과 화해 과정을 그리며 고요하게 휘몰아치는 최은영의 세계를 확고하게 보여준다.

최은영 저, 문학동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패트릭 브링리는 선망받는 '뉴욕커'에 입사해 성공을 꿈꾸는 야심만만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형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브링리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다. 불현듯 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니와 미술관을 방문한 기억을 떠올린다.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여 슬픔과 달콤함이 허용되는 미술관, 구석에 조용히 서서 관람객들을 지켜보는 경비원. 저자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놓아두기로 결심하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거장들의 작품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며 "일상은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며 가끔은 숨 막히게 아름다운 것"임을,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며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임을 서서히 깨달아간다.

패트릭 브링리 저, 김희정·조현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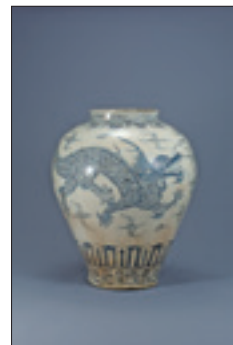
전시



용을 찾아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과 관련된 전시품 15점을 소개한다. <용을 찾아라>의 전시품을 통해 우리 조상들은 용을 '죽은 자를 지키는 서수', '불법의 수호자', '제왕의 상징', '재앙을 물리치는 신령한 동물'로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자로 사신 중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이번 전시를 보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운을 가져오는 특별한 용을 만나보면 어떨까.

2023년 12월 20일~2024년 4월 7일(휴관일: 설날 2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관 9개 실 월·화·목·금·일요일 10:00~18:00 (수·토요일 10:00~21:00) 무료



미셸 들라크루아, 벨 에포크전

화가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최초로 미셸 들라크루아 대규모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미셸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파리에서 보내며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파리를 그려 낸, 파리지앵의 정수를 담은 화가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미셸 들라크루아가 75세부터 90세까지 그린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파리의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찬사가 담겼다. 또한 그의 작품을 한국에서 200점 이상 볼 수 있는 최초의 전시이자, 노르망디에서 거주하는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2023년 12월 16일~2024년 3월 31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0:00~19:00 성인 2만 원, 청소년 1만 5,000원, 어린이 1만 2,000원



공연

뮤지컬 레베카



뮤지컬 <레베카>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국내 뮤지컬계에서 압도적 작품이다. 10년 동안 100만 명이 관람했을 뿐만 아니라 원작자로부터 “한국 무대가 세계 최고다”라는 극찬까지 받으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10주년을 맞아 류정환, 민영기, 오만석, 신영숙, 옥주현 등 이른바 ‘레베카 장인’으로 정평이 난 베테랑 배우들과 데이 등 뉴 캐스트의 합류로 시작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무대, 영상, 디자인으로 섬세한 디테일을 추가하며 한층 업그레이드해 그 어느 때보다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2023년 12월 14일~2024년 2월 24일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175분(인터미션 20분 포함) VIP석 17만 원, R석 14만 원, S석 11만 원, A석 8만 원



뮤지컬 일 테노레(IL TENORE)

‘일 테노레’는 이탈리아어로 테너를 뜻한다. 뮤지컬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조선 최초의 오페라 테너를 꿈꾸는 의대생 윤이선과 두 독립운동가 서진연·이수한을 통해 비극적인 시대에 꿈과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국내 뮤지컬 시장을 주도하는 신춘수 프로듀서, 독보적 감성으로 탄탄한 관객층을 확보한 박천후 작가와 월 애런슨 작곡가, 섬세한 감성의 김동연 연출 등 국내 최정상 창작진이 대거 참여했다. 흥광호, 박은태, 서경수, 김지현, 박지연, 홍지희 등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까지 더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2023년 12월 19일~2024년 2월 25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170분(인터미션 20분 포함) R석 16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나눔명문기업 가입하며 사회 공헌 사업 선도하는 대전도시공사

“나눔으로 이웃의 행복을 채웁니다”

지난해 나눔명문기업 가입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한해를 보낸 기업이 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기꺼이 수행해온 대전도시공사다.

글 강은진 사진 대전도시공사



1 2023년 직원 90% 이상이 사회 공헌 활동 20시간을 달성할 정도로 봉사에 적극적인 대전도시공사. 사진은 김장 봉사 현장 2 대전 동구와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의 '해피하우스 만들기' 기부식. 대전도시공사는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나눔명문기업으로 새로운 도약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큰 설립 목적 아래 오랫동안 기부와 봉사로 헌신해온 기업이 있다. 체계적 활동을 통해 성공적 사회 공헌 사업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유공자와 가족 지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및 장학금 후원, 지역 문화 예술 지원, 장애인 지원, 사회단체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19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등 국내외 재난 구호 성금 기탁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은 대전도시공사에 특별한 한 해였다.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며 사회 공헌 활동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해 12월,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20호로 이름을 올렸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법인이 참여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는 착한일터 가입은 물론 희망나눔캠페인 동참 등을 통해 대전 지역 취약 계층 지원에 힘을 보태왔다. 이제 나눔명문기업으로 나눔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게 됐다. 대전도시공사에서 진행된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서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은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전도시공사에서 진행된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30년간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서

명예로운 경사도 있었다.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25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창립 이후 30여 년간 장애인과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입주민을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 무료 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대전 지역 성인 장애인 문화 활동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대전도시공사의 보훈 사업도 유명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보훈 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지원해왔다. 호국보훈의 달인 매년 6월이 되면 국립대전현충원의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태극기 꽃기 및 수거 등의 봉사를 해왔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보훈 유공자 대상 사회 공헌 사업을 집중 테마로 선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보훈 유공 재가 복지 대상자에게 반찬을 지원하는 '맞춤보훈 효 사랑 쿡', 분양 아파트 특별 공급, 보훈 유공자 자녀 장학금 후원, 명절 차례상 지원, 전기 요금 및 맞춤형 물품 지원 등 사업의 폭을 대폭 넓혔다. 앞으로도 대전도시공사는 보훈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의 온정은 지역 소외 계층에도 이어졌다. 명절에는 제수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랑의 온정 나눔' 기부 행사를 진행했으며, 겨울이면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을 통해 김장 비용과 연탄 구



2



1

1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 후원에 적극적인 대전도시공사. 사진은 한남대 발전 기금 전달식 2 대전대·목원대·한남대 등 대전 지역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 식사' 사업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3



4

3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배달 봉사 현장
4 대전 관내 소외 계층 이웃들에게 명절 제수용품 키트를 제공하는 '사랑의 온정 나눔' 사회 공헌 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 이웃들을 위한 나눔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대전도시공사의 의무이자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

입 비용을 지원하고 김장 담그기 및 연탄 배달 봉사에도 나섰다.

전 직원이 봉사왕? 전국 1위

대전도시공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회 공헌 활동이 바로 직원 봉사다. 적당히 구색만 갖춘 활동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직원 1인당 봉사 시간만 따져도 전국 1위이기 때문이다. 2018년 대전도시공사 직원 253명이 참여한 봉사 활동은 총 7,140시간으로 이는 1인 평균 28.2시간이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같은 해 발표한 우리나라 직장인 연간 평균 봉사 활동 시간이 18.9시간이다. 평균보다 무려 10시간 가까이 많다. 지난해에도 직원 273명 중 252명이 20시간 이상 봉사한 것으로 집계돼 대기업 직원의 모범이 되었다. 농촌 일손 돕기, 하천변 환경 정화, 건축·전기·조경 등 전문 분야 재능 기부, 위문 및 캠페인 활동, 자선·구호 활동 및 헌혈 등 봉사 분야도 다양했다. 무엇보다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의 봉사 시간은 개인별 활동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이뿐 아니다. 직원들은 기부에도 진심을 다한다.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착한 일터를 통해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사랑의열매에 성금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지역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해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4,200만 원을 기탁하고 '이웃사랑 푸드 마켓 물품 기부'에 1,08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따뜻한 포부를 숨기지 않는다. 🍀

‘제11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 개최

“나눔은 희망을 나누는 일 같아요”

지난해 12월 21일 ‘제11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수많은 응모작이 쇄도해 대한민국 대표 나눔공모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수상작을 선정하기까지 심사위원이 고심을 거듭할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1 황인식 사무총장과 개인 부문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들
2 ‘제11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대표 수상자들이 함께한 시상식 현장



2

“제가 기부한 저금통은 이웃을 돕고, 지구를 돕고, 결국은 우리 가족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금통에 희망을 모으고 있어요.”

- 강원 성림초 6학년 고준 군의 ‘나와 함께 크는 파르보씨의 희망’ 중에서 (교육부 장관상 수상작)

●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제11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시상식에는 대표 수상자와 가족 50여 명,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 양호영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및 임직원이 함께했다. 올해 교육부 장관상은 ●개인 부문에서 ‘승아마켓’ 운문을 낸 서울 운현초 3학년 오승아 양을 비롯해 한 예인(18·경기 용인외대부설고 3학년) 양, 김유진(14·인천 남인천여중 2학년) 양, 고준(12·강원 성림초 6학년) 군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은 서대전고 ●지도교사 부문은 봉우리(서울 신목중) 교사가 수상했다.

이번 나눔공모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을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나눔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학교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나눔 실천 방법 소개 ●환경과 어울려 사는 나눔 이야기 등 세부 주제를 선택해 참가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글과 그림 부문 외에도 굿즈디자인 부문을 신설해 다양성을 더했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제11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에 참여해준 전국의 아동과 청소년, 지도교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공모전이 아동·청소년이 나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나눔문화가 전국으로 더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제11회 전국 초·중·고 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굿즈디자인 부문 시도교육감상 수상자 충주예성여고 박예원 학생



MINI INTERVIEW

Q __ 나눔공모전에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나요?
평소 공모전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즐기고, 그중 ‘제출 과정까지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두고 공모 참여를 결정합니다. 나눔공모전도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크게 놀랐지만, 무척 기쁠습니다.

Q __ 열매동이 후드 담요 & 목베개 디자인은 어떻게 떠올리게 되었나요?
생각의 흐름대로 연상해나가며 나눔-따뜻함-포근포근 등의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포근포근이라는 단어에서 몸을 감싸주는 담요를 생각했고요. 열매동이 캐릭터의 특징인 빨간색 머리, 초록색 망토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직접 열매동이 되어보는 콘셉트입니다. 콘셉트를 정한 이후에 목베개를 생각했습니다. 담요와 목베개를 함께 착용하면 뒷모습 실루엣이 열매동이처럼 귀여워집니다.

Q __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나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나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쉬우면서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것을 함께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앞으로 살아가며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바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Q __ 나눔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나만의 공모전 전략을 알려준다면요?
부담을 갖지 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권유로 참여했던 본인의 의지로 참여했던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클 것입니다. 결과물이 어떤지 자신이 정한 주제가 확실하다면 그 생각이 보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문화의 힘으로 더욱 행복하게

문화에는 삶을 치유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문화를 즐기는 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지만, 문화소외 계층에는 쉽지 않다. 사랑의열매는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를 통해 우리 이웃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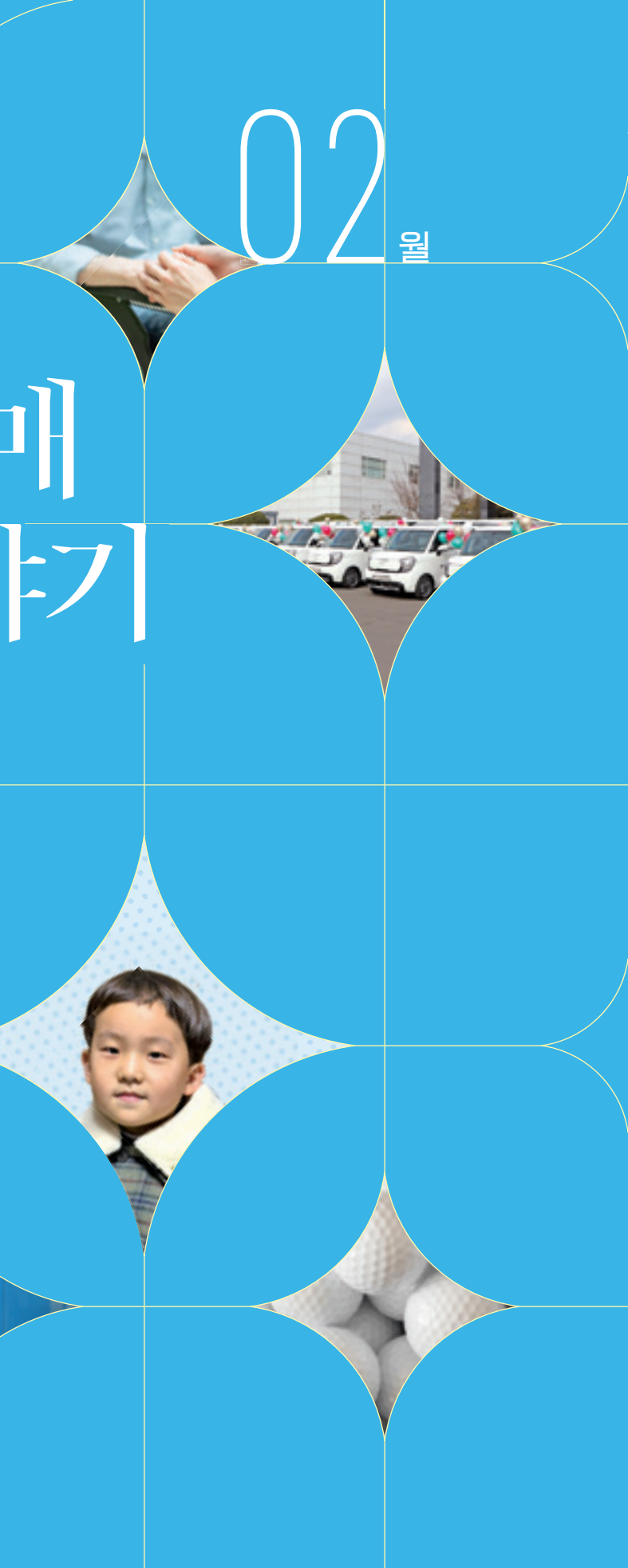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02

월

전국 열매 이야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진행한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이웃 위한 구슬땀, 추운 겨울 녹여요!”

연탄을 나르면서도 활짝 웃는 이들이 있다. 내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원들이다.

글 강은진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연탄 봉사 활동을 위해 추운 겨울 구슬땀을 흘린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회원들



1만5,300장의 연탄 기부

연일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날, 추위를 단번에 녹이는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이하아너클럽) 회원들의 봉사 소식이다. 나눔 도시 부산의 주축이 되는 부산아너클럽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에서 부산아너클럽의 연탄 봉사 활동이 펼쳐졌다. 이날 진행된 봉사 활동에는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과 부산아너클럽 정성우 회장, 부산 225호 아너 김미애 국회의원(해운대구), 부산 323호 아너 김진홍 동구청장 등 아너 회원과 가족 30여 명이 참석했다. 매축지마을은 바다를 매워 만든 곳으로,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고립된 형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당시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 좁은 골목길은 차량은커녕 리어카 한 대 지나가기도 쉽지 않다. 부산아너클럽 회원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연탄 1만5,300장을 기탁하고, 1,600장을 직접 배달 봉사까지 한 것이다.

멈출 없는 나눔 실천할 것

부산아너클럽은 연탄 봉사를 앞두고 2주가량 자체 모금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4,000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이 중 1,300만 원을 추운 겨울 연탄이 꼭 필요한 매축지마을 이웃을 위해 사용했다. 또 남은 2,700여만 원의 성금은 사회복지 기관 김장 김치 지원 및 저소득 가정 설 명절 지원, 여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연탄을 나랐다. 또 회원들은 “기부와 또 다른 봉사의 기쁨을 알게 돼 기쁘다”, “이웃들을 직접 만나니 보람이 배가된다”, “그저 연탄을 배달했을 뿐인데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등등의 소감을 전하기도 해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부산아너클럽 정성우 회장은 “연말을 맞아 봉사 활동에 적극 애써주신 아너클럽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부산아너클럽은 2014년부터 매월 아동 양육 시설을 방문해 저녁 식사 준비, 시설 환경 개선 봉사, 멘토링 사업 등 아이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 명절 차례상 지원, 겨울철 연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자랑하는 부산아너클럽은 부산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며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 중이다. ❀



1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는 아너 회원들 2 클럽 회원들은 매축지마을 이웃들의 집까지 연탄을 배달했다.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부산아너소사이어티클럽 정성우 회장



11년째 장애인 전동 휠체어
지원해온 신일휠체어
신동욱 대표

“장애인들의 보다 평안한 삶을 위하여”

장애를 가진 아들의 고장 난 휠체어를 고치면서
시작한 나눔이 어느새 10여 년의 기부와 20여 년의
봉사로 이어졌다. 오직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다.

글 강은진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대구장애인재활협회
신상윤 상임부회장, 신일휠체어
신동욱 대표,
대구 사랑의열매 강주현 사무처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의 휠체어 천사

신일휠체어 신동욱 대표는 대구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휠체어 천사'라 불린다. 20년 넘게 장애인을 위해 봉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 기부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런 그의 선행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 장애인 보장구 기증' 행사가 진행됐다. 신일휠체어 신동욱 대표는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동 휠체어·전동 리프트·욕창 방석 등 1,2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인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일휠체어 신동욱 대표, 대구 사랑의열매 강주현 사무처장, 대구장애인재활협회 신상윤 상임부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증한 물품은 모두 지역 장애인들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대구 사랑의열매를 통한 신동욱 대표의 기부는 올해로 11년째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전동 휠체어를 기증하기 시작해 매년 전동 휠체어와 수동 휠체어,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 기기를 기증해 왔다. 신동욱 대표가 대구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누적 기부액은 1억 4,000여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신동욱 대표는 “작은 기부지만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조금이나마 갖추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년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며 자신을 한껏 낮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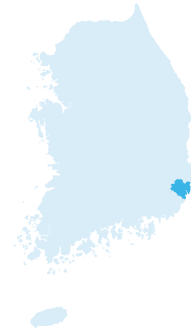
아들 위한 간절한 나눔

신동욱 대표는 뇌병변 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이기도 하다. 1급 장애를 가진 아들의 고장 난 휠체어를 고쳐 주다 주변 다른 장애인의 휠체어도 자연스럽게 수리해주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20여 년 넘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휠체어 수리 자원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다. 휠체어 기부도 이 같은 선행이 바탕이 됐다. 휠체어 수리 자원봉사로 1997년 한국장애인부모협회 '장한 아버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50만 원 전액을 휠체어 기부에 사용한 것이다. 대구 사랑의열매와는 2012년부터 함께했다. 신동욱 대표는 자신의 나눔을 일종의 선불이라고 말했다. 부모인 자신이 마음을 다해 베풀고 살면, 훗날 혼자 살아갈 아들에게 세상이 온정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나눈 만큼 아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동욱 대표는 “나의 작은 나눔이 대구 기부 문화 조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면서, “대구 시민 모두 기부 천사가 되어 휠체어 바퀴가 잘 굴러가듯, 다정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대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간절한 소망을 내비쳤다. ♡

“나의 나눔으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해 내 아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신일휠체어 신동욱 대표





골프 로스트 볼 자율 판매 수익금 기부 시작한 기업인 4인

“환경보호와 이웃 돕기,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죠!”

따뜻한 나눔은 끝없이 진화한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낸 울산의 특별한 기업인들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울산사랑의열매, 무인카페 젠히스커피

무인 카페 젠히스 커피의 골프 로스트 볼 판매 수익금 전달식이 1월 9일 울산제일일보 대표이사실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변기열 회장, (주)인광상사 금병기 대표, (주)한국통운 김유문 회장, 울산제일일보 임채일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젠히스 커피에서 판매 중인 로스트 볼, 가격은 4개 2,000원, 25개 1만 원이다.

커피에서 판매했다. 2022년 5월부터 시작한 로스트 볼 자율 판매를 위해 지금까지 총 2,700개의 공을 수거했다. 모임을 이끄는 금병기 대표는 “로스트 볼 수거 및 판매 수익금 기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도울 수 있어 무척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눔 오래 지속할 터

로스트 볼 자율 판매를 통해 성금을 마련하고 있는 금병기 대표, 강병중 대표, 변기열 회장, 김유문 회장은 로스트 볼을 수거하며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 폐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울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김유문 회장은 “앞으로는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을 수거하는 방법도 고안 중이다”라면서, “우리 네 사람의 나이를 합하면 320살이 넘어 운동만 해도 힘이 들지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공을 수거하는 방법도 고안 중이라는 이들은 앞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에서 로스트 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내비쳤다.

로스트 볼 가격은 1봉지 4개 2,000원, 25개 1만 원이다. 판매처 벽면에는 판매 수익금 전액을 공개하고, 전액 기부 증서도 걸어두었다. 이들의 활동은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

로스트 볼 줍는 회장님?

지난 1월 9일, 울산제일일보 대표이사실에서 아주 뜻깊은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울산 지역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특별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기업인들의 나눔이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주)인광상사 금병기 대표, 육일공업 강병중 대표,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변기열 회장, (주)한국통운 김유문 회장이다. 이들은 전달식을 통해 울산 사랑의열매에 울산 지역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모은 108만 2,000원을 전달했다. 이웃을 위해 전달한 성금 뒤에는 멋진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울산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이들 4명은 정기골프 모임을 가지면서, 골프장 내 진입하기 어려운 수풀 등지에서 직접 수거한 골프 로스트 볼(lost ball, 분실한 공)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성금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일일이 주운 공을 깨끗이 세척해 변기열 회장이 운영하는 울산시 북구 무룡로에 위치한 무인 카페 ‘젠히스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변기열 회장



경북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 임주원 아너 손자 만 5세 이갈렘 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나눔의 가치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은척양조장 임주원 대표의 꿈이 하나 이루어졌다. 자신이 아너에 가입할 무렵 태어난 손자의 아너 가입이다. 대를 잇는 소중한 나눔의 이야기. 글강은진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상주시청에서 진행된 이갈렘 군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



상주시최초 패밀리아너등극

무척 뜻깊은 나눔 소식이 전해졌다. 대를 이어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바로 은척양조장 임주원 대표와 손자 이갈렘 군의 이야기다. 지난해 12월 26일, 상주시청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이 있었다. 경상북도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가 탄생했기 때문. 주인공은 이제 만 5세가 된 이갈렘 군이다. 임주원 대표의 손자다. 가입식 행사에는 임주원 대표와 이갈렘 군, 강영석 상주시장,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갈렘 군은 이번 가입으로 경북 160호, 상주시 6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이갈렘 군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뒤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임주원 대표가 있다. 2018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상주시 3호 회원인 임주원 대표는 자신이 아너에 가입하며, 그다음은 손자를 아너에 가입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3년에 그 꿈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로써 경북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 탄생이란 영광도 안게 되었다. 가입식에서 임주원 대표는 “2018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할 때 약정 기부금을 완납하면 손자도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시키겠다는 개인적 목표를 세웠는데, 이루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자와 함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고자 한 개인적 목표를 이루게 돼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나눔에 참여해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은척양조장 임주원 대표

경북 사랑의열매 전우현 회장과 함께한 상주시 6호 아너 회원 이갈렘 군



나눔의 기쁨 나누고파

임주원 대표는 오랫동안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왔다. 경상북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부대표 및 경상북도 W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상주시 나눔봉사단장을 맡아 현장을 누비기도 했다. 또 상주여고 장학금 기탁, 장애인협회 차량 기증 등 다양한 기부와 봉사로 상주시 나눔문화 발전과 전파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같은 임주원 대표의 헌신은 지난 2023년 9월 모범 기업인상을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임주원 대표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면서, “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니 많은 분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갈렘 군의 나눔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경상북도 최연소 나눔리더에 가입했으며, 2019년에는 착한가정에 참여해 나눔을 이어갔다. 임주원 대표와 가족은 이처럼 이갈렘 군과 함께 크고 작은 나눔에 꾸준히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보다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가입식에 참석한 강영석 상주시장은 “임주원 대표에 이어 손자 이갈렘 군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에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위한 활동의 실천이 상주를 더욱 따뜻하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10년 넘게 이어온
'현대위아 1%기적 캠페인'

1%기적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쩌면 작은
진심에서 나오는지 것인 모른다.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1%기적 캠페인'을 보면 말이다.

글 강은진 사진 경남 사랑의열매

현대위아는 지금까지
현대위아 드림카 차량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총 170여 대를 지원했다.



나눔문화선도하는 현대위아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사회 공헌 비전 아래, 우리 이웃들의 좋은 행복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대위아의 훈훈한 나눔 소식이 들려온다. 바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1% 기적 캠페인을 통해서다. 현대위아는 2012년부터 경남 사랑의열매와 모금 협약을 체결, '현대위아 1% 기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선도해오고 있다. 1%기적 캠페인은 현대위아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현대위아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다. 임직원은 격월 기부자협의회를 구성해 지원 분야와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현대위아 사업장이 위치한 창원 외 6개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한다. 또 추후 지원 후기를 공유하는 등 기금의 모금과 운영, 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은 '현대위아 드림카 차량 지원'과 '1%기적 사회 공헌 사업'이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 금액은 66억 1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약 145,425명이 도움을 받았다.

먼저 교통 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드림카 차량 지원이다. 2023년 현대위아는 임직원 성금과 현대위아 기업 성금, 현대자동차그룹 성금을 모아 현대위아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창원·함안·울산·광주·서산·안산·의왕·평택 지역 사회복지기관 20개소에 차량을 지원했다. 지원 차량은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현대위아의 차량 지원은 어린이 보호 차량·장애인 슬로프 차량·냉동 탑차 등 총 170대에 이른다. 현대위아는 이 사업을 통해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사각지대 지원 돋보여

1%기적 사회 공헌 사업은 사각지대의 섬세한 지원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현대위아는 취약 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3,6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폭염에는 노인세대에 여름이불 지원과 장애인 세대의 방충망을 교체해주었으며, 한파에는 노인 세대에 겨울 이불과 경량 패딩 및 온열 패드 등을 구비해주었다. 또 아동 양육 시설 6개소에 아이들의 위생 관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드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 1대씩 총 12대를 지원해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밖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 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동·청소년 130명에게는 신학기 책가방을, 여성 청소년 120명에게는 여성용품 키트를 구성해 총 2,400만 원의 물품을 지원했다. 1% 기적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하는 현대위아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1 저소득 장애인 세대 방충망 설치 지원에 나선 현대위아. 사진은 후원금 전달식 2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신학기 책가방 지원 전달식

“지역사회를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데
현대위아가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펼쳐가겠다.”

-현대위아 임직원 일동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

소비부터 수거까지, 착하게!

제주삼다수가 자원 순환 사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자발적 재활용 문화 정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글 강은진 사진 제주 사랑의열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라산, 동문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 지역 17곳에 설치된 투명 페트병 수거보상기



착한소비, 자원 순환의 시작

친환경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삼다수가 제주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연간 100톤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탄소 배출을 최대 300톤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올해 4월부터 제주 사랑의열매 공모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 해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는 특유의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다. 하지만 증가하는 관광 인구와 비례해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64배 높은 수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 사랑의열매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조성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07년부터 제주 사랑의열매와 착한소비 협약을 맺고 제주삼다수 라벨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삽입해 그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는 제주삼다수 한 병에 소비부터 처리까지 지속 가능한 선순환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연간 5억 원 규모의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활용도움센터와 연계해 37곳에서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 수거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제주도 내 4개 수협과 협약을 맺어 추자도와 해안 인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를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직접 운반하고 있다.

한라산, 동문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17곳에 투명 페트병을 반납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자동 수거보상기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과 호텔

21곳과 별도 협약을 맺어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 시내부터 추자도까지 100여 곳에서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별도 작업장에서 추가 분류 작업을 거친 후 재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수거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1,000톤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3,000톤 감축한 효과를 거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국제 친환경 인증 기구인 컨트롤유니온(Control Union)으로부터 'OBP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OBP 인증은 100년 역사의 국제 인증 기관인 컨트롤유니온과 비영리단체 제로플라스틱오션스(Zero Plastic Oceans)가 심각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국제 인증 제도다.

이 밖에도 사업 수행 인력과 관리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수거 인력 역시 지역사회센터의 저소득층 자활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환경보호는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환경 교육과 투명 페트병 업사이클링 제품 생산 등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270호(충북 79호)

권영주 (사)대한노인회청주시상당서원구지회 지회장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현석장학기금'으로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전국 3271호(충북 80호)

유효경 (주)청풍소방안전공사 대표
"세상의 따뜻함을 경험해본 아이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어른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국 3300호(서울 409호)

김성주 (주)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이사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께 저의 조그만 경제적 도움이 모든 후원자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3305호(광주 163호)

김은자 (주)건축사사무소 아도 건축사
"네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꿉니다."



전국 3306호(광주 164호)

이미진 대명엘리베이터 대표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봉사와 나눔이 내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음을 느낍니다."



전국 3308호(광주 166호)

방주희 (주)아이디어플랫폼 대표이사
"담양군에서 옥담 카페, 수비니어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3309호(광주 167호)

선기주 (주)엠알티 대표이사
"오랫동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꿈꿔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전국 3311호(경기 325호)

임현일 임현일법률사무소 변호사
"나눔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전국 3314호(중앙 376호)

유진우 BT&I 팀장
"선기부 후성공 마인드로 살아가겠습니다!"



전국 3315호(대구 235호)

오세훈 (주)동아즈 대표
"나눔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감동을 느낍니다."



전국 3316호(대구 236호)

이동관 (주)맛찬들 대표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전국 3317호(대구 237호)

김재국 (주)미라클솔루션 대표이사
"나눔의 기쁨을 잊지 않고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3318호(경북 160호)

이갈렘



전국 3319호(울산 125호)

서인혁 바르게살기운동울산광역시 울주군협의회 회장
"나눔은 배움과 용기 있는 마음의 실천입니다."



전국 3320호(서울 411호)

김병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전국 3322호(서울 412호)

정찬욱 글렌우드PE 부대표



전국 3333호(울산 126호)

임나연 JYP엔터테인먼트 트와이스 가수
"저의 작은 나눔이 희망의 온기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전국 3334호(경북 161호)

박규탁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 한일건재공업(주) 대표이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회 공헌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국 3335호(경기 326호)

윤광렬 운봉농장 대표
"사람은 혼자살아갈 수 없기에 이웃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전국 3337호(경기 328호)

황태환 블루오트 대표
"나눔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이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전국 3339호(경기 330호)

이해성 해소담한의원 원장
"받은 이예겐 행복을, 나누는 이예겐 축복을."



전국 3344호(제주 146호)

조양수 우수주유소 대표
"우리들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미소가 됩니다."



전국 3345호(경북 162호)

강신부 금화건설(주) 대표이사
"힘든 시기를 지나 사업이 안정되고, 2023년 쌍둥이 손자를 얻게 돼 아너 가입을 결심했습니다."

충남 임경아 인셀덤SGM 대리점장, 김이태 김이태인과 원장,
오흥권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이사 · 농업회사법인 대풍(주) 대표
강원 권영욱 광주 이정오 정상기업(주) 대표이사,
김칠남 관장 화정점 · 34지암침대교호센터 대표

SBS 유영석 PD, 2024년 첫 번째 나눔리더 가입



SBS 유영석 PD가 2024년 첫 번째 나눔리더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영석 PD는 2008년 SBS <희망TV>를 통해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 특별 생방송 <희망TV 특별 생방송> 연출과 연중 방송들을 진행해왔다. 2023년 연말 특별 생방송을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나눔리더를 소개하면서 기부 가치에 공감하고,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자 가입을 결심했다. 지난 1월 4일 열린 가입식에서 유영석 PD는 “나눔이 만든 놀라운 변화를 소개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사랑의열매와 함께해 왔다”며 “나눔리더 가입을 계기로 나눔의 가치를 더욱 잘 알리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나눔 파트너로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의미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기자협회, 이웃사랑 성금 전달하며 나눔 동참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 1만 1,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언론 단체다. 2012년부터 매년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이 열두 번째 기부다. 박종현 회장은 “건전하고 따뜻한 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모습이자 미래여야 한다”며 “이웃을 향한 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것은 언론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는 아름다운 모방이어도 좋고, 창조적인 실천이어도 좋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기부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은 “기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며 한국기자협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세무사 겸 유튜버 이정윤 아너, 나눔 강연회 성금 기탁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세무사TV>를 운영하는 세무사 이정윤 아너가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열고 강의를 기부하는 나눔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 참가 비용은 10만 원으로 총 250명이 참여해 성금 2,500만 원을 모금했다. 이정윤 아너는 참여자 250명의 이름으로 성금을 기부하고 서울 나눔리더스클럽 50호로 가입했다.

(주)우즈오토코리아, 나눔명문기업 가입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사업을 대표하는 (주)우즈오토코리아(대표 예사노프 바흐티야르 굴라밋디노비치)가 1억 원을 기탁하며 서울 68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예사노프 바흐티야르 굴라밋디노비치 대표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금 전달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가 부산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성금 1억 179만 1,750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2023년 한 해 동안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보금자리펀드로 마련했다.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홍 동구청장, 이웃 돕기 성금 기부



2023년 7월 아너 회원으로 가입한 김진홍 동구청장이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구청장 취임 당시 급여 30%를 기부하기로 한 김진홍 동구청장은 꾸준한 나눔으로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새해를 맞아 나눔의 온기를 더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재)에스엘서봉재단,
이웃사랑 성금
14억 원 쾌척



(재)에스엘서봉재단(이사장 이충곤)이 희망 2024나눔캠페인에 성금 14억 원을 쾌척했다. 경기 침체로 더 큰 위기 상황에 내몰린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금을 전년 대비 40% 증액했다. 에스엘서봉재단은 지역 인재 장학금 및 연구 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매년 대규모 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 9개 지자체장,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 캠페인 참여



대구 사랑의열매가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펼치며 대구 지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2023년 12월 1일 첫 주자로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대구의 9개 지자체장 전원이 참여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자체장들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나눔에 동참해달라고 입을 모아 호소했다.

인천

(주)한국소방엔지니어링,
나눔명문기업 동참



(주)한국소방엔지니어링(대표이사 권혁진·권순도)이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인천 43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평소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나눔에 관심을 가져온 권혁진 대표이사는 전달식에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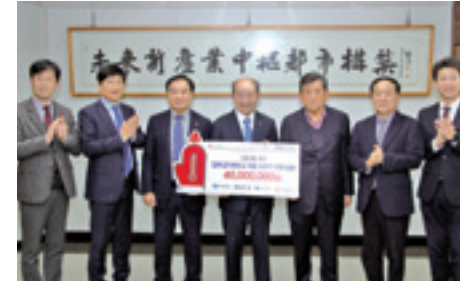
2024년 복권 기금
야간 보호 사업
지원금 전달



인천 사랑의열매가 인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2024년 복권 기금 야간 보호 사업 지원금 7억 2,716만 9,000원을 전달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지역아동센터는 1년 동안 귀가 지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통합 보호 및 정기 상담, 급식 및 간식 지원, 기초 학습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 방학 기간 특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정상화 위한
후원금 기탁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법정 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대표 기업 대유위니아그룹의 조기 회생을 위해 중흥그룹, 다스코(주), 보광종합건설(주)와 함께 1,000만 원씩 모아 마련한 성금 4,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주)위니아가 생산한 담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취약 계층에 전달하는 데 사용했다.

와토스코리아(주),
절수형 샤워기
헤드 1만 개 전달



육질 자재 전문 기업 와토스코리아(주)(대표이사 송공석)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절수형 샤워기 헤드 1만 개를 광주 지역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송공석 대표이사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물을 절약하면서도 건강에 이롭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따뜻한 나눔 실천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성금 160만 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은 매년 이웃 돕기 성금 모금 및 봉사 활동을 펼치며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김인식 원장은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4명,
대회 상금 전액 기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복성준, 신지현, 유서영, 이혜진 학생이 46만 5,000원을 기부했다. 이는 4명의 학생이 교내 대회에 참가해 받은 상금 전액으로, 저소득층 생계비와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뜻깊은 나눔에 동참한 학생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대전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울산

2023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
개최



울산 사랑의열매가 2023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포상식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무총리 표창을, 롯데삼동복지재단과 동울산새마을금고 하연관 감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울산광역시 표창 16곳, 울산광역시교육감 표창 5곳, 울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4곳 등 총 41곳에 포상했다.

육회한 정육점,
울산 착한가게
4000호 가입



육회한 정육점(대표 박준형)이 울산 착한가게 4000호로 이름을 올렸다. 박준형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울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는 2008년 1호 가입자를 맞이한 이후 지속적인 가입으로 15년 만에 4000호에 이르렀다. 2023년 12월 기준 누적 성금은 48억 6,000만 원을 넘어섰다.

경기

프로 골퍼 박현경
선수·팬클럽
큐티풀현경,
나눔캠페인 동참



프로 골퍼 박현경 선수와 팬클럽 '큐티풀현경'이 성금 4,0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성금은 2023년 시즌 동안 박현경 선수가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팬카페 회원들이 1,000원씩 적립한 2,000만 원에 박 선수의 매칭금 2,000만 원을 더해 마련했으며, 장애 아동과 익산시 저소득층 지원에 쓸 예정이다.

안산시, 나눔
키오스크 설치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시청 본관 1층에 나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나섰다. 나눔 키오스크는 신용카드와 각종페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기부를 실천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하다. 안산시는 나눔 키오스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 나눔 교육, 기부 챌린지, 대신민 홍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

임현일 변호사,
아너 가임으로
사랑 나눔



2014년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임현 일법률사무소를 운영해온 임현일 변호사가 성금 1억 원을 기부하며 의정부시 10호 아너로 가입했다. 현재 경기북부지방법원사회감사, 의정부지방법원 후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다.

(주)비엘아이,
파주시
나눔명문기업
가입



(주)비엘아이(대표 서경아)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파주시 나눔명문기업 6호로 가입했다. 이번 성금은 파주시청소년재단을 통해 파주시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경아 대표는 “평소에 청소년 육성에 큰 관심이 있어 이번 기부가 더욱 뜻깊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다.

강원

(주)서울에프엔비,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지역
사랑 실천



식품 제조업체 (주)서울에프엔비(대표이사 오덕근)가 강원 나눔명문기업 15호로 가입했다. (주)서울에프엔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황성사랑 십시일반 운동'에 참여하며 황성군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오덕근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해 황성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배분 사업
전달식 및 수행
안내 교육 개최



강원 사랑의열매가 2024년 배분 사업 전달식 및 수행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신청 사업으로 선정된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외 32개소, 복지 현안 우선 지원 사업 (차)으로 선정된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외 14개소 등 50개소가 참여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50개 기관에 총 9억 3,237만 5,009원을 배분했다.

충북

정우택 국회의원,
2024년 첫 번째
충북 나눔리더
가입



지난 1월 5일 정우택 국회의원이 2024년 첫 번째 충북 나눔리더로 이름을 올렸다. 정우택 의원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나눔리더 가입으로 우리 충북 지역에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북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충북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채종화·꿈돌이에능어린이집 원장)가 성금 797만 4,745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충북 도내 9개 시도 공공형 어린이집 96개소 보육 직원과 아동들이 참여한 푸른공깍지 나눔 행사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해당 행사는 아동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충남

서산시건설협회,
이웃 돕기 성금
1,200만 원 전달



서산시건설협회(회장 구자길)가 충남 사랑의열매에 성금 1,200만 원을 전달했다. 서산시건설협회는 추운 날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구자길 회장은 “회원사들과 함께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계룡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 개최



충남 사랑의열매가 희망2024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도내 시군구와 함께 순회 모금 행사를 펼쳤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계룡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7,750만 여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응우 시장은 “나눔에 동참하신 시민께 감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주)앤아이씨,
전북 최초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 등재



(주)앤아이씨(회장 임재현)가 지난 2023년 12월 3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전북 나눔명문기업 15호로 가입했다. 202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각 1억 원씩 총 7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 (주)앤아이씨는 누적 성금 10억 원을 달성해 전북 최초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이 됐다. 임재현 회장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MCS(주)
전북지사 및
13개 지점,
착한일터 가입



한전MCS(주) 전북지사(지사장 김성호)가 13개 지점과 함께 착한일터에 동시 가입했다. 성금은 전북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김성호 지사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
가입자 300명 달성



전남 사랑의열매가 전라남도와 공동 기획한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을 2023년 5월부터 7개월간 진행한 결과, 각계각층의 열기에 힘입어 당초 목표보다 80명 초과한 가입자 300명을 달성했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캠페인 모금액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을 2024년 기획 사업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에 지원했다.

광주전남지방
법무사회, 26년째
꾸준한 나눔 실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가 연말 연시 이웃 돕기 성금 1,972만 원을 전달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주전남 지방법무사회는 1998년부터 매년 나눔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성금은 총 4억 677여만 원에 달한다. 정덕안 회장은 “함께 힘을 모아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주)에코프로, 포항시에 성금 3억 8,400만여 원 기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 (주)에코프로가 포항시 이웃을 위한 성금 3억 8,400만여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6개 가족사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금을 더한 8,400만여 원에, 가족사별 연말 나눔 성금 3억 원을 더해 마련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김병훈 대표이사는 “희망찬 2024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도군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 존 제막식 진행



지난해 12월 28일 청도군청에서 청도군(군수 김하수)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 존 제막식을 진행했다. 2013년 1호 가입 이후 총 8명의 아너를 배출한 청도군은 아너 회원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나눔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 존을 마련했다. 김하수 군수는 “홍보 존을 통해 경북 전역에 나눔 문화가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한국철강(주), 나눔명문기업 경남 18호 가입



한국철강(주)(대표이사 이수하)가 나눔명문기업 경남 18호로 이름을 올리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성금은 창원시 성산구 관내 저소득층의 의료비 및 복지사업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수하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로 골퍼 최혜진 선수·팬카페 월드퀸, 나눔캠페인 동참



프로 골퍼 최혜진 선수와 팬카페 ‘월드퀸’이 각각 1,000만 원, 1,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2019년 아너로 가입한 최혜진 선수에 이어 팬카페 월드퀸은 이번 나눔으로 나눔리더스클럽 경남 12호로 가입했다. 최 선수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성과나눔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제주도의회 한권 위원장, 제주 149호 나눔리더 가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위원장이 2024년 첫 번째 제주 나눔리더로 가입하며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성금은 제주도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2024년에는 더 많은 분이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며 “나눔리더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 현안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식 진행



제주 사랑의열매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개소에 2023년 제4차 복지 현안 지원 사업 배분금 총 6,673만 1,000원을 전달했다. 사업에 선정된 7개 기관은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직업 재활 ●문화 예술 활동 ●재난·재해 상황 극복을 위한 방재단 구축 활동 ●지역 아동 대상 환경 미술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 ‘2023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상금 기탁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운영과가 ‘2023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300만 원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규제심판운영과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 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론> 도서 판매 수익금 기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이 발간한 <항공정책론> 도서 판매 수익금 400만 원을 세종시장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항공정책론>은 항공정책실 직원들이 항공 분야에 대한 상식과 국내외 정책을 알기 쉽게 쓴 책으로, 학생은 물론 항공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기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2화

이상한 이상해씨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